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3째주 (1월17일)

# 정교회 주보



성 테오도시오스

루가 제 12주일

성 안토니오스 대수사

제 7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7조 부활찬양송 / 82, A 217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 안토니오스 축일 찬양송/날짜별 성가집 62

•성당 찬양송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사도경 : 히브리서 13:17~21 / 봉독서 630

•복음경 : 루가 17:12~19 / 130, B 8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교회의 기혼 성인들

### 성 테오도시오스

성 테오도시오스(AD346~395)는 경건한 비잔틴 제국의 황제, 성 플라킬라의 배우자, 정교의 수호자, 거룩한 성직자들과 성인들의 경건한 친구, 우상숭배와 이단을 뿌리 뽑은 자, 교회의 평화를 위해 제 2차 세계공의회를 소집한 자, 유익한 입법자, 아르카디오스와 오노리오스 후손을 둔 아버지입니다. 성인이 황손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권고한 것은 성직자를 완전한 경건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써 자신들의 영적인 평화와 왕국의 평화 모두 지켜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의 아내는 항상 곁에서 현명한 충고자로 머물렀습니다. 성인의 아내는 자주 가난한 이

들, 병자들,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애정이 가득한 아내였고, 현명한 어머니였고, 겸손한 왕비였습니다. 왕비로서 가진 부와 명예가 성녀의 하느님에 대한 열망을 꺼트리지 못했습니다. 왕비 플라킬라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테오도시오스 성인은 직접 복음말씀을 필사하였고, 그것으로 매일 성서를 정독하였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스는 테오도시오스 성인에 대해 지상을 다스리는 왕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인 것을 더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부부성인의 두 왕관은 불멸의 왕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인은 395년에 밀라노에서 안식하였습니다.



## “회개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며 선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시며 전도를 시작하셨다.(마태오 3장, 4장)

우리는 2020년도를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아주 낮이 설고 이상한 삶을 살았다. 지금도 그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삶이 지속되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극히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동물 또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누출되어 지상에 퍼져 인간에게 감염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눈으로 볼 때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판단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확대되어 세상이 극복하기 더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 때문이었는지 뚜렷이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로 앞장서서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인간과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여 멸망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여 죄를 깨닫는 길만이 온전히 살 수 있다. 회개를 통해서 창조물을 복원시켜야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 우리의 욕심으로 아름다운 창조물을 잘 가꾸고 지키지 못하여 훼손

시킨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과학을 빌미로 하느님께 도전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 복음서에서 나병환자 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병의 고침을 받았으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 아홉 사람은 자기들이 의인이어서 당연히 이런 기적을 받았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제 갈 길을 가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의 기적을 받게 되자 주님께 돌아와서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다. 아홉 사람은 그저 인간적인 눈밖에 가진 것이 없었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홉 사람은 세상의 만족에 그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 축복을 통해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하는 말씀과 함께 하늘나라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 죄를 잘 알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런 사람들만이 영적 눈이 뜨여서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회개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 세상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살 길이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신부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기도에 대한 응답 2)

졸려서 하품이 나오고, 모든 것이 그저 성가시게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귀찮고 실망스러워서 서둘러 도망가게 되고, 또는 많이 부주의하면서 의심도 생겨나 무관심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과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망이 계속해서 병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향상됨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도 발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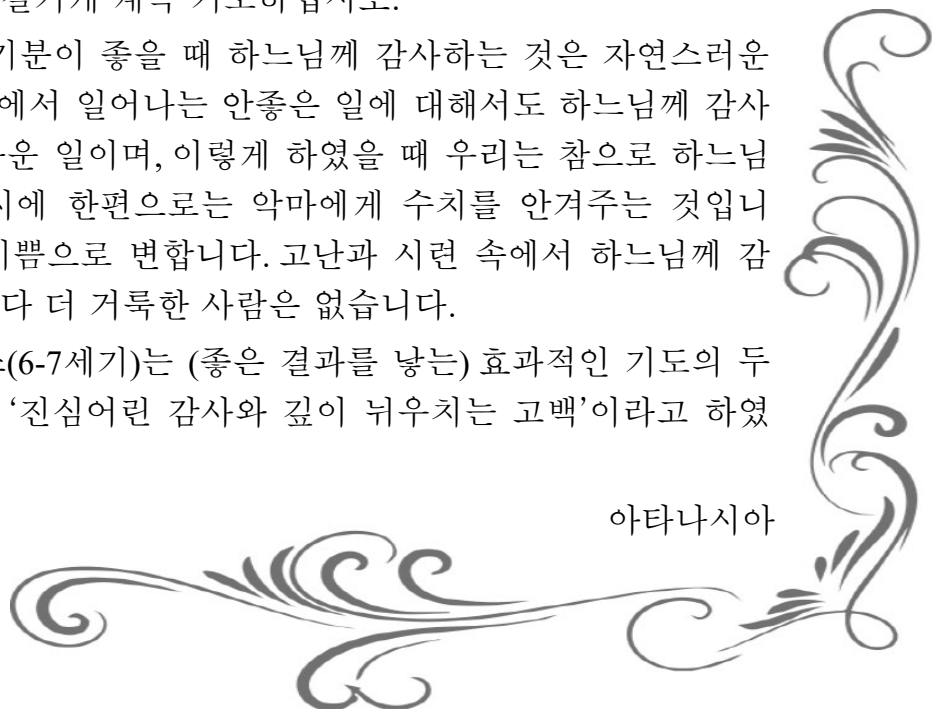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잘 요약한 아래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더 오래도록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당신은 시련과 유혹에 휩싸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삶의 폭풍우를 잠잠케 해달라고 주님께 청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더욱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을 때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안좋은 일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할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악마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슬픔은 영적인 기쁨으로 변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 요한 끌리막스(6-7세기)는 (좋은 결과를 낳는) 효과적인 기도의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진심어린 감사와 깊이 뉘우치는 고백’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타나시아





## 대교구

■ 제 17회 대교구의회 일정 변경 공고  
2021년 1월 19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제 17회 대교구의회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1월 24일 주일 오후 2시로 변경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신자총회

2021년 정교회 한국대교구 모든 지역 성당들의 신자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성당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뭉치면서 온라인을 통해 한국정교회의 올 한해 사업과 성장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겨울 수련회 취소

매년 겨울에 진행해오던 겨울 수련회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름 수련회는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돛나 강순희 교우께서 지난 1월 8일 안식하였습니다. 온 생애를 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오던 고인께서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87세에 안식하였습니다. 고 돛나 강순희 교우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돛나 교우의 영원의 안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주간예식

1월 18일(월) 성 아타나시오스와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1월 21일(목)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사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